

이 보였다면, 저쪽에 있는 다른 길에서는 올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산꼭대기들이 보였지. 리아나덩굴과 뒤엉켜 뻗 뻗하게 우거진 타타마카나무 숲에 들어서면 한낮에도 사물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였어. 그런데 그 옆으로 산을 등지고 길게 튀어나와 있는 저 거대한 바위 끝에서는 멀리 바다와 함께 이 암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였으니, 때로 바다 저편에서는 유럽에서 오는 선박이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선박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. 이들 두 가족은 저녁때가 되면 다 같이 저 바위에 올라, 공기의 상쾌함과 꽃향기와 샘물의 속삭임을, 빛과 그림자의 마지막 해조를 고즈넉이 만끽하곤 했다네.

이 미궁 같은 분지 곳곳에 숨어 있는 대부분의 휴식처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, 세상에 그만큼 정겨운 것이 또 없었어. 방금 자네에게 말한 바위 같은 경우, 저 멀리서부터 내가 오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우정의 전망이라고 불렀어. 풀과 비르지나는 자기들끼리 하는 놀이의 일종으로 그곳에 대나무 하나를 심어놓고는, 내가 오는 것이 보이자마자 나무 꼭대기에 조그만 흰 손수건을 매달아 나의 도착을 알렸네. 이웃 산에서 바다에 배가 보이면 기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. 나는 그 대나무 장대에 글귀를 하나 새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.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얼마간의 기쁨이란 고대 조각상이나 유적을 보는 데 있었는데, 특히 거기 새겨진 잘 지어진 글귀 하나를 읽노라면